

육당의 지리산 여정을 다시 돌아 보다

종걸 스님 비롯 불자들, 육당 최남선 <심춘순례> 재발간



종걸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과 심춘순례 회원들의 2013년 10월 송광사 순례 모습

3·1운동의 시발점이 된 기미독립선언의 기초자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에 의해 친일파로 낙인을 찍었던 육당 최남선의 진면목이 새롭게 밝혀졌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석전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 중 육당 최남선이 지은 <심춘순례(尋春巡禮)> 원본을 발견해 <심춘순례(尋春巡禮)> 독서 모임인 심춘독회

(尋春讀會) 회원들과 함께 자료집으로 펴냈다.

<심춘순례>는 육당 최남선이 조선불교초대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 스님(1870-1890)을 모시고 1925년 3월 28일부터 50여 일간 호남과 지리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한도인(開道人)'이란 필명으로 시대일보에 순례기를 연재해 1년 후 전반부의 기록을



모아 펴낸 책이다. 이 책의 속표지에는 '이 작은 글을 석전 노사에게 드리나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들은 8개월 간 매주 1회 독회를 하며 육당의 여정을

석전 박한영 스님에게 봉헌한 책 미발표 자료 찾기 과제로 남아

따라 답사하면서 선운사, 백양사, 송광사 등 1920년대 호남지역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200여장의 사진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했다. 특히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어려운 한문 원전과 한시, 불교용어 등 읽기가 어려운 원본을 쉽게 풀어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심춘순례>는 육당이 직접 걸어나다며

모악산과 변산에 비롯해 백암산, 내장산, 조계산, 무등산을 횡단하며 우리 산하와 문화, 삶의 모습을 그림을 보듯 생생하게 표현하고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우리의 민속신앙과 옛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표현하고 있다.

종걸 스님은 "석전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됐으며 이번에는 아쉽게도 50일의 일정 가운데 전반부인 28일간만 있어 미발표된 후반부를 찾는 일은 속재로 남겨졌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을 여행하며 쓴 글이어서 더욱 관심이 갔다"고 말했다.

심춘독회 회원들은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을 비롯해 JTV전주방송 손성국 PD, 김승대 전북도 문화재위원, 김진돈 전라극석문연구회 회장, 서홍식 한국서도협회 회장, 이문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관, 이종호 신아출판사 상무 등으로 구성됐다.

심춘독회는 향후 육당 최남선이 미발표한 자료를 수집해 추가 자료집으로 엮을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계 5·18추모행사 다채롭게 진행

5·18민중화운동추모하기 위한 불교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사)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지난 5월 18일 5·18국립묘지에서 '5·18민중항쟁 희생자 영령을 위한 영산대제'를 공식기념식이 이어 진행했다.

이날 전통불교영산회는 30여 회원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시련, 대령, 관음, 식당작법, 영산작법, 시식,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에서 "매년 5·18희생자를 위한 영산대제를 봉행하지만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의 마음을 더 보냈다"며, "국가권력과 관리의 잘못으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불교회관경연대(상임대표 법일)

도 5월 17일 5·18구묘역(최초 희생자들이 암매장된 묘역)에서 참배객들을 위한 주먹밥 나누기 행사와 제7회 작은음악회 및 해원구 행사를 개최했다.

주먹밥 나누기는 1980년 5·18당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싸우는 시민군에게 주먹밥 식사를 나눠줬던 의미를 담아 이날 묘역을 찾은 참배객에게 나눠주는 행사이다.

이어 진행된 작은음악회에는 박양희 씨의 진행으로 노래(주하주, 오영목, 김영학, 전영규, 강숙향, 주권기)를 비롯해 스킨밴드, 소리꾼(이병채, 황연수, 김영희), 시낭송, 소설가 공선옥, 푸른연극마을, 찻감굿, 한겨레평화의나무합창단 등이 출연해 5·18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도 작은음악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구묘역에서 천도기도를 봉행했다. 지역단은 매일 1회씩 구묘역을 찾아 천도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도 23일 광주원각사에서 '5.18민중항쟁 제34주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생태적 대안사회의 모색, 공동체운동'이라는 주제로 유정길 법사(에코붓다 대표)의 초청발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행사에는 행법스님, 오재일 5.18기념재단이사장의 추모사와 박양희, 원곡사합창단의 초모노래, 김희용 목사의 추모시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5·18국립묘지에서 열린 영산대제 모습.

평화통일 토론회 및 발원정진

5월 23~24일 월정사에서 평화발원문 봉정, 각계 서한 발표도

지해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성자인 오대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토론의 장이 열렸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단장 진관)은 5월 23~24일 평창 월정사에서 '통일 한국의 정체성- 불교에 평화통일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통일 이후의 국가정체성을 내다보고 바람직한 통일과정

전개와 주변 열강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정부와 국민의 준비와 그 자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첫날 토론회에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바람직한 통일국가 완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남북연합체제 수립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 간에 체결해 단일 민족경제 수립을 통해 북한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어 "서독의 통일에서부터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한 없는 민간교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우리 사회는 가장 먼저 종북몰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사회세력으로 이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통일은 물류에서 시작되며 이를 계기로 일어나는 정보이동과 인간이동의 확대는 북쪽의 세습집단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인도적 지

원은 계속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의 입지를 다진 햇볕정책의 오류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복 명예교수는 "절대빈곤은 오히려 이들 세습집단의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인도적 지원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삶과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이어 둘째날에는 '한반도 평화발원 정진'으로 오대산 적멸보궁 108배 정진,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의 한반도 평화 발원문 봉정, 각계에 보내는 서한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고창 선운사, 팽목항 법당에서 기도정진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아 5월 15~16일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을 비롯해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미소사 주지 종범 스님, 도솔암 진용 스님, 군산 관음사 도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선운사, 관음사 불자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진용 스님의 집전으로 천수경과 금강경 봉독에 이어 관세음 정경을 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공업중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의 탓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극

락왕생을 발원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팽목항 법당에는 희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만을 위한 법당이 별도로 마련돼 조계종 호남 5개본사에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13~14일 대흥사, 15~16일 선운사, 17~18일 백양사가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다.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은 "희생자가 가족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이다"며 "하안거 결제로 인해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쳐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많은 스님들이 기도에도 동참해주시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스님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 17회 6·25 호국영령 합동추모제

6월 1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는 제17회 6·25 호국영령 합동추모제를 개최한다.

견불사 호국영령 추모문화제는 1997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다. 행사는 추모의 식과 역사교육을 겸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견불사는 "지역행사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각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정"이라며 "호국영령들의 가신 뜻을 되새기고 유족

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전후세대들의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논산 대정요양병원과 산·학 협약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5월 23일 정병조 총장, 서문성 산학협력단장, 장민호 교학지원처장의 관계자 3명이 논산 대정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산·학 협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강대 학생들의 사회복지 실습처 제공 및 교직원과 학생의 진료지원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요양병원 구성원의 직원교육, 자문, 학술행사,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 두 기

관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금강대 정병조 총장은 인사말에서 "금강대 학생들이 최근 국·내외에 많은 교육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학생들의 의료서비스가 취약하였으나, 금번의 협약체결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봉사의 장을 마련하여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박물관 솥대만들기 전통문화공방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5월 17일과 24일 총 2회에 걸쳐 솥대에 담겨있는 조상의 정신을 되새기고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전통공방, 미니솥대만들기'를 개최했다.

이번 솥대만들기 공방엔 60여 명이 가족 단위로 참석했다.

솥대는 삼한시대의 소도 유품으로서 원래 긴 장대 끝에 오리 모양을 깎아 올려놓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간(神竿) 역할

을 하여 화제, 가뭄, 질병 등 재앙을 막아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세우던 전통적인 조형물이다.

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조상들의 정신적인 지주의 하나였던 솥대를 만들어봄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최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제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